

유교 문화와 한국어

주 명 애 *

국문요약

한민족의 가치관념, 사고방식, 의식구조, 행동양식 등 제반 영역에서 유교 문화적 양상을 쉽게 고찰할 수 있다. 한국인이자 어떤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도구인 한국어 역시 유교 문화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유교 문화의 전반적 체계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 가족중심주의 문화,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공동체 문화, 충효가 강조되는 예의 문화, 사회질서 기강을 중시하는 서열 문화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문화학적 관점에서 가족주의 문화, 예의 문화, 공동체 문화, 서열 문화 등 유교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유교 문화를 고찰하는 동시에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양상을 분석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자 한다.

주제어 유교 문화, 가족주의, 공동체, 예의 문화, 서열 문화

〈목차〉

1. 문제 제기
2. 가족주의 문화와 한국어
3. 공동체 문화와 한국어
4. 예의 문화와 한국어
5. 서열 문화와 한국어
6. 결론

* 중국 산둥대

1. 문제 제기

한국은 동아문명권의 일원으로서 세계화·정보화와 더불어 동양문화와 서구 문명 간의 동화, 배척 및 융합의 상호작용 현상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속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유교 문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타파, 배척의 주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조선시기 유교 문화는 근대화의 장애로 간주되는 한편 일본의 식민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도 간주되어 반식민지투쟁의 사상적 상징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¹⁾ 또한 우리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발전의 동력을 유교 문화에서 찾으며 유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공동체 해체라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교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논의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 문화는 한민족의 가치관념, 사고방식, 의식구조, 행동양식 등 한국 사회의 전반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줌으로써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형성, 발전하도록 하였다. 유교가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유교적 형태의 사회행동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 영향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 한국인이자라면 실질적으로 현실생활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서울의 성균관에 대성전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23여 개나 있다. 여기에는 공자로부터 맹자 등의 성인, 아성과 한국의 선현 명유들을 모시고 있다. 1984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0.5%만이 본인이 유교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지만 한국인의 91.7%는 그들의 행동과 인식에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³⁾ 유교가 비록 국가 통치이념으

1) 김태만, 「유가의 가족주의와 아시아의 근대화」, 『대구사학』 제61집, 대구사학회, 2000, p.128.

2) 계재광, 「유교 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010년 봄호, 한국실천신학회, 2010, p.85.

3) 이희완, 이현경, 「한국 유교정치문화가 관료의 권위주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p.35.

로서의 절대적 위치는 상실하였어도 한국인의 의식구조 저변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미치는 유교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상관없이 유교는 한국 사회를 이루는 주요한 원칙 내지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적 연결망은 유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유교 문화는 한국어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도구인 한국어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아 유교 문화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와 언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곧 문화 이해의 과정이기도 하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일뿐더러 또한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문화는 언어에서도 나타나며 또한 언어라는 도구를 이용해 전승된다. 따라서 언어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면서 또한 문화적 요인 즉 성별, 연령, 신분, 계층, 거주지 등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차이로 하여 언어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념, 지식체계, 행동양식도 차이를 보인다. 객관세계에 대한 주관적 이해가 다른 것은 곧 다른 언어체계로 객관세계를 해석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가치관념, 종교 신앙, 민족 심리와 성격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사회를 고찰할 수도 있는 것이다.⁵⁾ 따라서 한국어 언어체계도 유교에 뿌리를 둔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순수하게 한국의 유학이나 한국어에 관련된 연구, 한국 유교 문화가 경제 발전과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4) 계재광, 「유교 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010년 봄호, 한국실천신학회, 2010, p.86.

5) 주명애,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008년6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북경: 민족출판사, 2009, p.4.

있다. 또한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접목시킨 한국문화교육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인 유교 문화와 한국어를 접목시킨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 본 논문은 언어문화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유교 문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양상을 분석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자 한다.

유교의 방대한 사상체계에 대하여 한마디로 개념정의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국 유교 문화의 전반적 체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 가족중심주의문화,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문화, 충효가 강조되는 예의 문화, 사회질서 기강을 중시하는 서열 문화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유교 문화는 가족주의 문화, 예의 문화, 공동체 문화, 서열 문화 등에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2. 가족주의 문화와 한국어

가족이란 부부와 부모, 자식이 모여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가정이라고도 한다. 개인을 사회 구성원의 기본단위로 보는 서구와는 달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족이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로 간주된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족 내의 원리를 사회조직이나 국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가(國家)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의 집이란 뜻이다. 국가라는 명칭은 물론, 국왕을 국부(國父), 왕비를 국모(國母)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가족을 분석적으로 설명할 적절한 개념을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 가족 문화는 가구 구성에서부터 그 규모, 형태, 기능, 가족 관계, 가족 규범에 이르기까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가족의 위기’라고 지적할 정도로 변화의 다양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독신가구, 비혈연가구, 홀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형태가 병존하며, 그 규모에 있어서는 1명, 2명, 3명, 4명 등 다양한 규모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가치관의 근간이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인의 가치관 체계는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 하지만 한국 사회의 가족중심의 문화적 근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가족은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로 간주되며 가족중심주의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한국인은 가족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가족 구성원을 아끼며 사랑한다. 개개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가족으로서 ‘우리’의 구성원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현재의 실질적인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조상들, 그리고 현재의 가족 구성원은 아니지만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 내의 조상을 숭배하고 존경하며 조상의 제사를 빠짐없이 지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에는 지금도 족보라는 가계를 기록한 책이 전해져 오고 있다. 서울의 중앙박물관에는 족보 열람실이 있고 민간의 족보 연구소도 있다. 물론 서양의 사상과 신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제례문화는 다소 약화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중요한 민족풍습으로 존속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인은 가족의 대를 이을 후대도 각별히 소중히 여긴다. 한국의 가족은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생활의 중심이 부부가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도이다.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가족주의 유교 문화로 규명하면서 유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조직 경영시스템에 미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유교의 가족본위 사상과 가족 윤리 질서, 위계적 사고, 폐쇄적 공동체 의식 등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유교 문화가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 가족을 단위로 한 중소형 가족 기업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를 형성, 발전시켰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유교적 가족 윤리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는 서양의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 자본주

6) 조은, 「한국인의 가치형성과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위기’」,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2002, p.95.

의에 비해 인간적인 색채가 더욱 강해 정서융합과 노사관계의 조화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의 신속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의 상호관계는 가족과 개인적 관계에 의하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재벌시스템은 가족중심적인 조직체로 성장하였다. 왜냐 하면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적 가족 문화가 발달했으며 강력한 가부장적 전통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사회조직의 질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기업네트워크는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의 형태로 발전되어 있는 것이다.⁷⁾ 이런 전지에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일종의 ‘가부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확대된 가족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재벌 소유주들이 종종 기업 내에서 공식적인 직위도 없이 재벌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재벌소유주는 유교가정의 가부장과 같이 재벌시스템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재벌그룹 내의 전문경영인들은 창업자와 창업자 가족들과 개인적 연계를 갖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광범하고 복잡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재벌은 소유주와 경영인 사이 내적으로 매우 통합성이 높고 친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⁸⁾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서 직장은 집과 같은 곳이며 흔히 ‘우리 회사’, ‘우리 사장님’이라고 한다. 또한 회사 내의 동료 사이에도 마치 형제자매,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상사와 직원, 동료 사이에도 흔히 가족적 호칭을 붙여 ‘형’이나 ‘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는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적 양상이라고 하겠다.

가족주의는 한국어의 호칭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비록 초면인 경우에도 흔히 상대방의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머님, 아버지님, 오빠, 언니’ 등 가족적 호칭을 씌으로써 마치 혈연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른다.

7) 김태만, 「유가의 가족주의와 아시아의 근대화」, 『대구사학』 제61집, 대구사학회, 2000, p.148.

8) 위의 글, pp.147-148.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며 더욱 친절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길을 물을 때 흔히 ‘어머님, 아버님, 언니’라는 호칭을 쓴다. 이렇게 낮은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부름으로써 상대방과의 거리감도 줄이고 친절감도 더해준다. 상대방 역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한국인의 미풍이다. 한국에서 백화점이나 매점에 가게 되면 판매원이 상대방의 연령을 짐작하여 “어머님, 뭘 필요하세요? 뭘 드릴까요?” 혹은 “언니 뭘 필요하세요?”라고 말함으로써 친절을 나타낸다. 체육경기장에서 한국인은 모 운동선수를 응원할 때 흔히 “***오빠 화이팅”이나 혹은 “***언니 화이팅”이라고 부른다. 텔랜트의 음악회 같은 곳에서도 “***오빠 화이팅”이나 혹은 “***언니 화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비록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이지만 가족적인 호칭을 부가함으로써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웃이 비록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이지만 친밀 관계의 정도를 혈연관계가 있는 사촌 형제자매 관계의 차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가족으로 여기고 또한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3. 공동체 문화와 한국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생존의 필요성, 공동의 노동과 지리적 사회적 이동의 제한성으로 인해 무리를 지어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분명한 것은 과거의 전통사회와는 다른 차원의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사회의 공동체는 개인의 존재가 묵과된 채 집단의 이익만 강요되었지만,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는 개인적 해방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전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소외 현상이나 삭막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며 현대사회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낄 때도 있다. 흔히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자신

도 모르게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한국은 단일민족의 국가로 동류의식, 공동체 의식은 예로부터 한민족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류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를 ‘끈’의 사회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혈연의 끈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어떤 끈이든 간에 그야말로 “연줄연줄, 아름아름, 끼리끼리, 오손도손” 맺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 것이다.⁹⁾ 공동체 문화에서는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로 보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동체 안의 통합과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목적을 희생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주로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연고주의라고 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종교, 군대, 취미생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 전통적인 집단주의 정서는 정보화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인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등 현실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⁰⁾

혈연은 성별, 연령, 학력, 사회적 지위, 주거 지역에 제한 없이 주로 가족과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맺어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유대이다. 혈연관계는 단순히 친족관계에 제한되지 않고 동족관계로 확대 조직되어 ‘문중’을 이루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이익단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종족이나 문중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보여주며 근대화와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의 장에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원임을 확인시키면서 자신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오히려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¹¹⁾

지연은 비록 혈연관계는 없지만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같은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로 사람들 사이의 동질감을 공유하는 인간관계의 유대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흔히 고향을 떠나 도시에 나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9) 천소영, 『우리말의 문화 찾기』, 한국문화사, 2007, p.116.

10) 조옥라 외,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내재된 전통과 근대의 문제: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집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3, pp.5-6.

11) 김광익,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문화: 가족과 종족 연구를 위한 한국 인류학의 패러다임 모색』, 위의 책, p.323.

히 지연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지연이라는 요소가 한국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

학연은 한국 사회에서 혈연과 지연 못지않게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유대이며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학연이 혈연이나 지연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피가 진한 사회에서 학연의 역할도 크지만, 혈연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고 할 수 있다. 지연의 효과도 학연을 통제한 후의 순수 지연효과는 학연보다 작다.¹²⁾ 전통사회에서는 혈연이나 지연이 학연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서서는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연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물론 높은 교육열은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문화이기도 하지만, 학연이 날로 중요시되는 오늘날 좋은 학연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연이 날로 더욱 한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재벌 그룹들은 주요 대학 출신 이사들이 동문회 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엘리트집단과 사회·정치적 연계를 갖는 것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재벌 소유주들이 학연, 혼연, 개인적 친분 등을 통해서 국가 관료 또는 정치인들과 유착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을 전문경영인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¹³⁾

최근에 들어 한국 사회에서 현대적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생활 공동체와 부분적 공동체를 들 수 있다. 대안적 생활 공동체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최초의 생활 공동체는 ‘한살회’이다.¹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활 공동체는 생식 마

12) 김용학, 「한국 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김성국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2003, p.99.

13) 김태만, 앞의 책, pp.146-147.

14) ‘한살회’는 원경선 씨에 의해 1955년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되었다. 개간도 안 된 땅 1만 평을 마련하면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였다. 1976년에는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을 시작하면서 바른 농사를 지향하기 위한 정농회를 창설하였다. 한살회는

을, 일명 야마기시 공동체라고도 하는 산안 마을, 1992년에 아가피아 공동체, 1995년에 변산 공동체, 1999년에 인드라망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상의 대안적 생활 공동체는 주로 종교적 형태가 많은데 생식과 같은 특정 목적의 공동체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부분 공동체는 1990년대 이전의 경우에는 기독교적 형태나 복지적 형태의 공동체가 주류를 이루었다. 1970-1980년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수용하는 종교단체가, 또한 정치적 민주를 요구하는 사회운동과 함께 등장한 노동자와 농민 공동체들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운동 차원의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기독교적 공동체 외에 불교적 공동체, 도교적 수련 공동체가 출현하였고,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친환경적인 공동체 운동이 활발해졌다. 또한 도시 주민의 권익과 시민적 권리를 공동체 운동 속에서 담아내려는 지역 공동체 노력들도 있으며 공동체 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같은 사회단체가 공동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¹⁵⁾

한국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공동체 혹은 국가와 분리시키는 서구의 개인주의 전통과는 달리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특정의 개인에게 돌리기 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나’라는 개인적 존재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우선이다. 한국인은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단절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긴다. 따라서 최대의 형벌은 개인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⁶⁾

한국어의 언어체계 역시 자아의식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자아’에 대한 가치는 ‘나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는 흔히 ‘무아의 언어’라고도 한다.¹⁷⁾ 한국어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 경작과 공동 소유 그리고 공동분배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에 있는 풀무원 농장에서 생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동일, 「공동체에 있어서 유교적 가치의 함의」, 『동양사회사상』 제4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1, pp.140-141.

15) 이동일, 위의 책, pp.143-144.

16) 이상억, 『한국어와 한국문화』, 소통, 2008, p.328.

서 유교 문화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용어는 ‘우리, 저희, 너희’ 등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소유보다는 한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의 공동 소유로 인식되는 것들 앞에서는 ‘우리, 저희, 너희’ 등의 복수대명사가 쓰인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수대명사인 ‘내, 제, 네’를 사용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집, 학교, 회사 등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비록 집, 학교, 회사가 특정 개인의 소유일지라도 ‘나의 집, 나의 학교, 나의 회사’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자연스럽다. 이때의 ‘우리’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것임을 의미한다.¹⁸⁾

또한 ‘나의 남편, 마누라, 아이’도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우리 아이’로 바뀌어 표현한다. 이때는 여러 사람과의 관련성이나 공동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특정인의 소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¹⁹⁾ 즉 비록 이때의 ‘우리’는 소유격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대신하는 기능, ‘나의 소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기능’만 하고 있지만, 언어 속의 공동체 소유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강조되며, 개인의 가치는 다만 공동체 가치 속에서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예의 문화와 한국어

한국의 예의 문화는 한국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이 예의지국으로 불리는 것도 예의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

17) 張優, 「韓國文化對韓語話語規則的影響」,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5卷第2期, 2007, p.67.

18) 최동주, 「한국어 대명사 ‘우리, 저희’와 ‘너희’의 단수적 용법」, 『근·현대 동아시아관계의 변화와 인본주의』, 북경: 민족출판사, 2010, p.475.

19) 위의 글, p.477.

화 이래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 예의 문화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예의를 지킬 것을 강요받는 것이 현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예의 문화는 한국인의 삶 저변에 녹아 흐르고 있으며 한국인의 행동양식, 의복, 식사 등 제반 분야에서 나타나며 또한 한국어의 인사예절, 의사 표현과 대답 방식, 한국어의 경어법, 호칭, 인칭 대명사 등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예의 문화는 한국인의 인사예절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인은 인사할 때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인사 예절이 있다.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경우 또는 악수하는 경우도 있고, 허리 굽혀 경례하는 경우 또는 무릎 꿇고 큰절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인사법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적절한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즉 화자와 청자의 연령, 성별, 신분,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인사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의 인사 레벨은 보통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이다. 여기에서 “안녕!”은 보통 손윗사람이 어린이 등 나이 차이가 많은 아랫사람한테 흔히 쓰는 인사말인데 친구와 같은 대등관계이지만 아주 친숙한 관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는 흔히 대등관계이거나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출 것을 필요로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때 흔히 쓰는 인사말이고, “안녕하십니까?”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면 대형 모임이나 활동, 언론 매체 등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경우에 쓴다. “안녕하세요?”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다.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 나이 차이가 많더라도 화자가 성인일 경우는 “안녕하세요?”로 인사해야 한다. 이것은 성인이 된 아랫사람에 대한 손윗사람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청자가 성인일 경우라면 반드시 상대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예의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가족 내에서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지만, 가족을 벗어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는 인사하는 것도 복잡하고 엄격한 만큼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기에 화자가 청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따라 적절한 인사말을 선택해야만 낭패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예의 문화는 한국인의 의사 표현과 대답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인

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견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흔히 ‘-것 같다’, ‘-것으로 보인다’, ‘-수 있겠다’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취급한다. 한국에서 직설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당돌하거나 흔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취급받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이 강요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복종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윗사람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만큼 한국은 가족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예의로 간주되며 또한 연장자의 권위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예의 문화는 한국어의 경어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그 어느 언어에 비해서도 더 복잡하고 발달되어 있으며 상이한 시간, 공간, 언어 환경, 청자 등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한국어의 경어 체계는 주체 경어, 객체 경어와 상대적 경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주체 경어와 객체 경어는 유교의 예의 문화를 반영하고, 상대적 경어는 서열 문화를 반영한다.

주체경어는 화자가 대화 속의 주체에 대해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체경어는 주체 뒤에 ‘-님’이나 ‘-께서’를 붙여 존경을 나타낸다. 한국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형’ 등 호칭 뒤에 ‘-님’을 붙여서 존경을 나타낸다. 그런데 모든 호칭 뒤에 다 ‘-님’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언니, 올케, 동생’ 등에는 ‘-님’을 붙이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한국어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 외에 또 일부 특징적인 사회적 신분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위에 대해 존댓말을 씌으로써 예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교수님, 의사 선생님, 변호사, 대통령님, 회사 사장님, 국장님, 과장님’ 등이다.

한국어에는 용어 자체가 존경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명사로는 ‘진지, 말씀, 춘추, 맥, 생신’ 등이 있고 동사로는 ‘드시다, 주무시다, 드리다, 올리다, 별세하다, 서거하다’ 등이 있다.

한국어에서 존대 대상의 동사 어간 뒤, 어말 어미 앞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 줌으로써 문장의 주어에 대한 예의를 나타낸다. 또한 화자에 따라 주체에

관련된 많은 단어들에 ‘-시’를 붙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주체와 관련된 신체명사에는 ‘-시’를 사용하지만, 사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문을 보면,

- * 김 교수님은 제자가 많으시다.
- * 김 교수님의 스카프는 예쁘시네요.(어색함)

예의 문화는 한국어의 호칭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존대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나 ‘그녀’ 등 제3인칭을 쓰지 않고 사회적 신분이나 직함으로 제3인칭 ‘그’나 ‘그녀’를 대신한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척 내의 아랫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름이나 ‘그’ 혹은 ‘그녀’라고 하지 않고 사회적 직함을 붙여 ‘김 사장’, ‘이 과장’ 등으로 부른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예의 문화는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은 물론 윗사람도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즉, 상대방이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성인일 경우에는 예의를 갖추어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게다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흔히 ‘애비야’, ‘에미야’라고 부른다. 결혼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형제 사이에도 형이 결혼하게 되면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형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고, 형수도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도련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5. 서열 문화와 한국어

유교는 천지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천지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의 변화와 움직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간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변화

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즉, 순천자(順天者)는 살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인합일 사상에 따라서 유교는 인간과 인간의 조화도 강조한다. 여기서 인간과 인간의 조화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가는 일이다. 인간관계의 조화를 위해서는 가족 내부의 생활 질서, 사회생활 속의 행동양식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 윤리와 관련해서 ‘삼강오륜’을 체계화하여 교육과 교화를 통하여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나라에 대한 ‘충’과 가정에서 ‘효’가 중심이 되어 체계화된 ‘삼강오륜’은 유교 윤리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서 인간관계의 위계질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삼강오륜은 평등사상과는 거리가 먼 상하의 수직관계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였던 것이다. ‘삼강’사상을 보면 즉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에는 주종관계 또한 상하의 인간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신뢰 받고 지탱해 주는 사람과 의지하고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²⁰⁾ 군위신강은 국가적 차원에서, 부위자강은 혈연적 차원에서, 부위부강은 남녀관계의 차원에서 양자의 위계질서를 설정하고 있음으로써 인간관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륜에 있어서 상하의 위계질서는 장유유서 즉 가족 내에서의 서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조직 생활에서의 상하의 명령과 복종은 물론, 안면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관직이나 나이로 서열이 있고, 학문적으로도 선후배 사이의 서열이 있으며 가족 친척 사이에서도 두말할 것 없이 서열이 지켜지고 있다.²¹⁾

한국 사회는 전통유교 문화의 엄격한 서열 문화를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유교적 권위주의 문화가 더욱더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는 1961년에서 1992년 사이 군사정부의 국가 주도하에 추진된 산업화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반면에 사회 전반에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윗사람과 아랫사

20) 김일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 문화』, 도서출판 한울, 2004, p.85.

21) 위의 책, pp.104-105.

람 사이의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서열 문화가 더욱 고착되었던 것이다.

먼저 한국의 가족 친척 사이의 서열관계를 보면, 한국의 가족관계는 부계를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부모는 자식에 비해 절대적 지배의 지위에 있었다. 가족 내에서는 절대적인 효가 강요되었고, 가족 내에서의 효는 사회로 확장되어 모든 어른들과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강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남편과 아내 등 모든 관계가 계층적 서열과 순서로 규정지게 되었으며 그 서열관계 속에서 개개인의 권리,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또한 엄격한 서열관계 속에서 효에 대한 강요는 부모와 어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사회적 미덕으로 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서열 문화는 한국 사회의 계층적 패턴과 시스템의 중요한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는 가족과 친척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있는데 부부 사이는 0촌,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 형제 사이는 2촌,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와 자기의 사이는 3촌이며 종형제 사이는 4촌이다. 부부 사이는 0촌인데 0촌이란 가족 내의 그 어느 관계에 비해서도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부부는 돌아누우면 남이다”라는 속담이 알려 주듯이 부부는 이혼해서 헤어지면 남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촌수법은 가족 내의 인간관계의 원근을 나타내고 또한 촌수법에 따라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킴으로써 가족의 화목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호주제는 가부장적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공공의 국가에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이다.²²⁾ 민법 제4편(친족편)에 해당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었다. 이 호주제가 남성 중심적 호주 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이 중심이 된다.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며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 다만 이혼하면 여성의 호적 창설이 가능하지만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다. 한국의 호주제는 남성의 지나친 특권적 지위로 인하여

22) 전병련, 「국제화의 진전과 한국유교 문화의 변용」, 『공자학』 제7호, 2000, 한국공자학회, p.73.

여성이 억압당하고 사회나 정치, 가족에서 주로 여성을 복종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남존여비 사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호주제의 폐지는 제도적으로 가부장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문화적 관습은 일조일석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관계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연령과 성을 기준으로 하는 위계질서와 역할 분할이 뚜렷한 특징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족 내의 가장이 가지는 권위와 통제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생활 중에서도 평등과 사랑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수직상하적인 인간관계가 여전히 주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수직적이고 종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²³⁾

문화의 형태에 대하여 트리안디스(Triandis)와 겔판드(Gelfand)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또한 수평적-수직적 사회관계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고 문화의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즉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이다.²⁴⁾ 문화의 네 가지 형태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문화의 네 가지 형태

수직적 개인주의 (Vertical-Individualistic) 미국	수직적 집단주의 (Vertical-Collectivistic) 한국
수평적 개인주의 (Horizontal-Individualistic) 스웨덴, 호주	수평적 집단주의 (Horizontal-Collectivistic) 일본, 이스라엘

23) 천소영, 『한국어의 문화를 찾아서』, 서울: 한국문화사, 2007, p.120.

24) H. C. Triandis and M. J. Gelfand,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998/1), 119. 게재광, 「유교 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010년 봄호, 한국실천신학회, 2010, pp.82-83, 재인용.

트리안디스(Triandis)와 겔판드(Gelfand)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수직적 집단주의 범주에 속한다. 즉, “한국과 같은 수직적 공동체 문화에서 사람들은 나이, 연공서열, 그 집단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결정된 계급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의한 차별적이고, 차등적인 취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 문화에서는 만약 집단의 상위에 있는 구성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자산이나 재원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그 조직과 사회를 이끄는 리더의 타당성이 구성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각자가 담당하는 일과 기술에 근거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²⁵⁾

어느 사회에서든 사람들은 힘과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더 높은 지위와 그에 따른 권위를 누리기 위해 애쓴다. 한국인 역시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갖기 위해 중요한 통로가 됨을 알고 있는 것이다.²⁶⁾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대화는 공식적이고, 제한적인 구속을 받을 때가 많다. 한국어의 호칭에는 가족이나 친족 사이더라도 ‘성+사회적 직위’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김 사장(님)’, ‘박 교수님’ 등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사회적 직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한국어의 서열 문화 특징을 여실히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어체계는 복잡해서 그 유례를 다른 언어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복잡하고 엄격한 한국어 경어체계는 한국 사회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위계나 서열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어는 대화의 첫 부분이 흔히 상대의 연령, 신분이나 사회적 직위 등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경어체계에서 상대적 경어체계는 유교 문화의 위계질서를 가장 잘 보여준다. 한국어의 상대적 경어체계는 어느 언어에 비해서도 더

25) K.S. Kim, F. Dansereau, I.S. Kim, and K.S. Kim, “A Multiple-Level Theory of Leadership: The Impact of Culture as a Moderator,” *Journal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Studies* 11(2004/1), 위의 글, pp.83-84, 재인용.

26)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2002, p.59.

복잡한 데 시간, 공간, 상황, 청자의 성별, 연령, 신분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경어체계를 조금만 소홀히 했다가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는 청자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할 수도 있다.

한국어의 상대적 경어체계는 복잡하고 엄격한데 학자에 따라 분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존대의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즉,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이라고도 하고, 격식 존대형(4등급), 비격식 존대형(3등급), 반말형(비격식, 비존대, 2등급), 평교형(격식, 비존대, 1등급)이라고도 한다.

‘아주 높임’은 ‘합소체’로써 한국어 경어 체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나타내는 경어이다. 이러한 경어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엄숙성과 예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신문 미디어 방송, 대중 연설이나 대형 활동 등에서 흔히 쓰이고, 실생활 속에서는 특별히 존경을 필요로 할 때만 쓰인다. ‘아주 높임’의 종결어미는 ‘-습니다/-ㅂ니다/-습니까/ㅂ니까’이다. ‘예사 높임’은 ‘하오체’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구어체로 많이 쓰인다. ‘예사 높임’의 종결어미는 ‘-요’이다. ‘예사 낮춤’은 ‘하계체’로서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구어체로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 동료 사이 등 동년배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예사 낮춤’의 종결어미는 ‘-오/-소/-구려’이다. ‘아주 낮춤’은 ‘해라체’로서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 쓰인다. ‘아주 낮춤’의 종결어미는 ‘-아, -라’이다.

한국어의 동사 어미는 그대로 존대의 등급을 나타낸다. 격식 존대형이 가장 높고 평교형이 가장 낮다. 동사 ‘보다’를 통해 한국어 존대의 등급을 고찰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동사 “보다”의 등급²⁷⁾

존대 등급 \ 서법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격식 존대형(4등급)	보십니다	보십니까?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시는군요
비격식 존대형(3등급)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시네요
반말형(비격식, 비존대, 2등급)	보아(봐)	보아(봐)?	보아(봐)	보아(봐)	보네(아)
평교형(격식, 비존대, 1등급)	본다	보니?	보아라	보자	보는구나

또한 한국어에는 “찬 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장유 유서의 서열 문화를 잘 보여 준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서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윤리규범인 것이다.

한국어 호칭에는 영어의 ‘you’와 대응되는 2인칭 대명사가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you’는 화자와 청자의 대등관계를 나타내지만,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 ‘너, 당신, 그대, 자네, 야’ 사이에는 상하의 서열관계가 있으며 영어의 ‘you’처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손아랫사람이나 허물없는 친구 사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에서 존대를 해야 하는 상대에게는 2인칭을 생략하고 가족적, 직업적, 신분적 위계를 표시하는 명사 예를 들면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선배님, 과장님, 사장님’ 등으로 대체한다. 또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자 씨’ 등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대가 본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본인 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에 한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 ‘민우 씨’라고 부르면 실례가 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당신’이라는 2인칭은 중년부부사이에서나 쓰일 뿐인데 구어체에서 학교 문법 대로 누구에게나 ‘당신’이라고 했다가는 실수하기가 십상이며 심할 경우에는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사실상 영어의 ‘you’와 대등하게 한국어에서 ‘너’라고 하면 실례할 때도 많다. 한국어의 2인칭 ‘너’는 같은 연배나 손아랫사람한테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존대의 대상에게는 ‘너’라고 할 수 없다. 또

27) 박영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서울: 한림출판사, 2006, p.107.

한 동년배라도 허물없는 친구관계가 아니면 ‘너’라고 할 수 없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어의 2인칭 ‘그대’는 일반적으로 구어체에는 잘 쓰이지 않고 시나 산문 등 문학 작품에 흔히 쓰인다. 보통 구어체에서는 농담이나 할 때 쓰이는 것으로 격식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2인칭 ‘자네’는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성인일 경우 존대를 해 주는 예의상의 호칭이고 2인칭 ‘야’는 어린이나 허물없는 아주 친숙한 관계에서 혹은 상대를 비하해서 부르는 호칭이다.

한국어의 서열 문화는 한국어의 압존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압존법이란 말하는 이가 당연히 높여 말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듣는 이가 서술어의 주체보다도 높은 지위일 경우,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손자가 할아버지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할 때나 제자가 선생님께 선생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압존법을 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손자: 할아버지, 아버지 먼저 왔어요?
- * 학생: 교수님, 박영미 선배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압존법은 다른 경어법에 비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다른 경어법은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지켜지지만, 압존법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높임법을 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영민: 할아버지, 아빠 집에 돌아오셨습니까?
- * 직원: 사장님, 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한국어의 ‘우리, 저희’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women(我們)’과 ‘zanmen(咱們)’ 두 가지 있다. 한국어의 ‘우리’와 ‘저희’에서 ‘우리’는 화자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사용하는 말이고, 반대로 화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말할 때는 겸양어인 ‘저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women’과 ‘zanmen’은 한국어의 ‘우리’와 ‘저희’의 엄격한 구분처럼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소속 단체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어의 ‘women’과 ‘zanmen’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women’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zanmen’은 청자를 포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어는 평등한 인간관계보다는 위계질서의 등급체계를 강조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유교 문화와 한국어에서 반영되는 유교 문화적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유교 문화를 가족주의 문화, 예의 문화, 공동체 문화, 서열 문화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근대화 세계화와 더불어 서구문명의 충격은 현대 한국 사회의 전통문화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 문화도 한국 전통문화 중의 일부분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사라져야 할 낡은 시대의 유물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수용과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논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 문화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지나친 부각은 유교 문화의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는 기존의 가장이 가지던 가족 내의 권위와 통제력이 점차 약해지고, 수직상하적인 인간관계보다는 평등과 사랑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외형상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한국 문화의 깊은 내적 저변에 여전히 동양적 유교 문화가 작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현대 한국에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이란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 질서와 모습을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효는 사회생활의 충으로 확대되어 유교적 예의 문화와 수직적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서열 문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의 가족중심주의와 수직적 인간관계에 대한 강조

는 개인주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공동체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가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교의 삼강오륜은 개인들에게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인간관계와 처세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의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가족은 혈연을 기초로 하여 먼 친척까지 공동체에 포함시켜 공동체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유교 문화적 양상은 역시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족중심주의 문화와 공동체 문화, 공동체 문화와 예의 문화, 예의 문화와 서열 문화, 서열문화와 가족중심주의 문화가 중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복잡하고 엄격한 한국어의 경어체계는 유교적 문화적 양상을 복합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유교 문화적 양상은 한국 사회에서 일조일석에 바뀌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화되지는 않겠지만 가족중심주의, 합리성보다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예의,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평등보다는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라는 요인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유교 문화적 특징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듯하다. 한 언어체계는 그 사회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기를 걸쳐 유교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또한 그 특성을 지속하고 있는 한 한국어의 유교 문화적 특징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교 문화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자세보다 유교 문화의 훌륭한 덕목을 발견하고 계승하는 작업과 현대 사회발전을 위해 유용한 방향으로 적용시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 강정인, 「세계화·정보화와 동아문명의 문화정체성: 서구중심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2, pp.211-238.
- 계재광, 「유교 문화가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미친 영향-유교의 권위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010년 봄호, 한국실천신학회, 2010, pp.77-106.
- 김광익,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문화: 가족과 종족 연구를 위한 한국 인류학의 패러다임 모색」, 『한국문화인류학』 35집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pp.303-336.
- 김용학, 「한국 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김성국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2003, pp.99-127.
- 김태만, 「유가의 가족주의와 아시아의 근대화」, 『대구사학』 제61집, 대구사학회, 2000, pp.119-161.
- 이동일, 「공동체에 있어서 유교적 가치의 함의」, 『동양사회사상』 제4집(2001), 동양사회사상학회, pp.129-161.
- 이희완·이현경, 「한국 유교정치문화가 관료의 권위주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집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pp.33-55.
- 정병린, 「국제화의 진전과 한국유교 문화의 변용」, 『공자학』 제7호, 한국공자학회, 2000, pp.51-81.
- 조옥라 외,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내재된 전통과 근대의 문제: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집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3, pp.3-42.
- 주명애,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008년6호,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북경: 민족출판사, 2009, pp.4-16.
- 주명애, 「한국어의 예의문화 특징과 한국어 교육」,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010년7호,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북경: 민족출판사, 2010, pp.251-265.
- 조 은, 「한국인의 가치형성과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위기」,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2002, pp.93-112.
- 최동주, 「한국어 대명사 '우리, 저희'와 '너희'의 단수적 용법」, 『근·현대 동아시아관계의 변화와 인본주의』, 북경: 민족출판사, 2010, pp.468-482.
- 張 優, 「韓國文化對韓語話語規則的影響」,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5卷 第2期, 2007, pp.67-69.

단행본

- 금장태, 『유학사상과 한국사회』, 한국학술정부(주), 2008.
-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한국학술정부(주), 2007.

- 금장태, 『한국유교의 현실인식과 변혁론』, 집문당, 2006.
- 김일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 문화』, 도서출판 한울, 2004.
- 김성국 외,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전통과 현대, 2003.
- 박영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2006.
- 이상억, 『한국어와 한국문화』, 서울: SOTONG출판사, 2008.
-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2002.
- 천소영, 『한국어의 문화를 찾아서』, 서울: 한국문화사, 2007.
-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2002.

접 수 일	2011년 1월 24일
심 사 일	2011년 2월 19일
게 재 확 정 일	2011년 3월 5일

Abstract

Confucianism culture and the Korean language

Ming ai-Zhu

Value conception, mind-set and ceremony structure of the Korean race, it will be able to investigate a Confucianism cultural aspect easily from behavior pattern back various territory. Koreans no matter if you have any religious beliefs, whether actually living according to Confucian values seem to be.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a tool of doctor being understood of a Korean as well Confucianism cultural feature there will be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to seem. Researches about the general system of Korean Confucianism culture the thing the unit only is difficult among those but family central attention culture, the individual under at the time of the community culture and loyalty and filial piety are emphasized the society first of all in the order cultural etc. field which considers seriously the ardent culture where and a social order enforcement of discipline focus the loach analyzing, it appears not to be having a possibility. The present paper consequently from language cultural school register viewpoint nepotism culture and ardent culture, focus the place week objective which analyzes the Confucianism cultural aspect which is reflected to the Korean language in the same time when it investigates the Confucianism culture of loach Korea to sleep lets in community culture and order cultural back Confucianism culture it does.

Keyword

Confucianism culture, Nepotism, Community, Ardent culture, Sequence culture